

슬래그폐기물 안정화처리를 위한 슬래그 특성 연구

최휘경, 황두성, 최윤동, 이규일, 문재권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1045

hwi82@kaeri.re.kr

1. 서론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처리방법 중 용융처리는 제염 효율, 폐기물 감용 및 오염 핵종의 균질화에 효과적인 처리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금속폐기물의 용융처리 시 ingot와 이차 폐기물로서 슬래그폐기물이 생성된다. ingot는 방사성폐기물로 처분하거나 제염 가능 시에는 자체처분폐기물로 전환하고, 이차폐기물인 슬래그폐기물은 쉽게 부서지는 슬래그 특성상 안정화 및 고형화 처리하여 처분해야만 한다 [1].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의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시 발생한 금속폐기물을 용융제염하고 발생한 슬래그폐기물을 안정화 처리하기 위하여 슬래그폐기물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2. 본론

유리고화체는 적당한 유리조성 물질과 방사성 폐기물의 융합에 의해 형성된 고화체로 유리고화시 폐기물은 유리에 의해 포획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원자가 유리조성원자와 결합되기도 한다.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용융 후 발생된 슬래그폐기물에는 산화물과 규화물 혹은 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슬래그가 유리화 응고를 하도록 하는 SiO_2 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3] 다른 첨가제 없이 슬래그폐기물만으로 고화체를 제조 할 수 있다고 본다.

슬래그형성제는 금속용융 공정에서 불순물 성분의 분리를 돋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로 금속 용융체의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열의 발산을 감소시킨다[4].

우라늄변환시설 발생 금속폐기물의 용융제염 시 사용된 슬래그형성제는 2.38-1.14mm의 연황색 입상이며 표. 1과 같이 슬래그형성제의 화학적 성분은 유리고화체 제조에 필요한 SiO_2 와 Al_2O_3 주성분이다. 그림 1은 슬래그 형성제의 TG/DTA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슬래그형성제는 약 4%

정도의 무게감량이 일어났으며 1200°C가 넘어가면서 흡열반응을 나타내어 이 온도 이상에서 녹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lag former

항목	기준치(wt%)	분석치(wt%)
SiO_2	72-75	73.5
Al_2O_3	15-18	14.3
Fe_2O_3	1-2	1.51
CaO	1-2	1.45
MgO	0.2-0.3	0.20
K_2O	1-2	1.5
Na_2O	1-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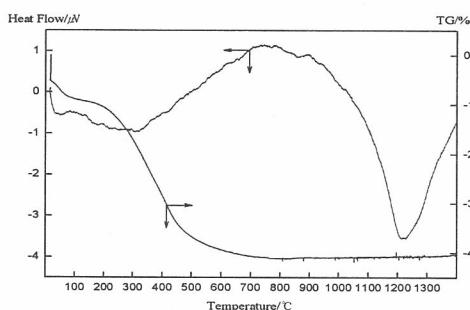


Fig. 1. TG/DTA of slag former

우라늄변환시설 발생 금속폐기물 처리 시 생성된 슬래그폐기물의 오염핵종은 우라늄이며, 방사능농도는 약 24Bq/g이다. 그리고 슬래그폐기물에는 다량의 금속폐기물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는 슬래그폐기물의 TG/DTA 분석결과로 %무게가 증가하여 오히려 슬래그 내 함유된 특정 물질이 산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반응은 복잡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어 슬래그폐기물의 녹는점을 추측하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는 슬래그폐기물에는 금속의 부식성분 등 다량의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서 특정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결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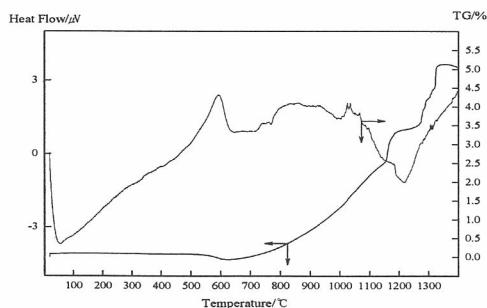


Fig. 2. TG/DTA of slag waste

슬래그의 유리고화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흑연도 가니를 사용하여 슬래그형성제를 1200°C, 1300°C에서 1시간동안 용융하였다.

슬래그형성제를 1200°C에서 1시간 용융시킨 결과 슬래그 알갱이가 그대로 붙어만 있는 상태로 소량 녹기는 하였지만 그림 3(a)와 같이 유리고화체가 되지 못하고 쉽게 부스러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300°C에서 1시간 용융 시킨 결과 그림 3(b)와 같이 유리고화체가 생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라늄 함유 슬래그폐기물을 1300°C에서 1시간 용융시킨 결과 그림 3의 (c)와 같이 유리고화체가 생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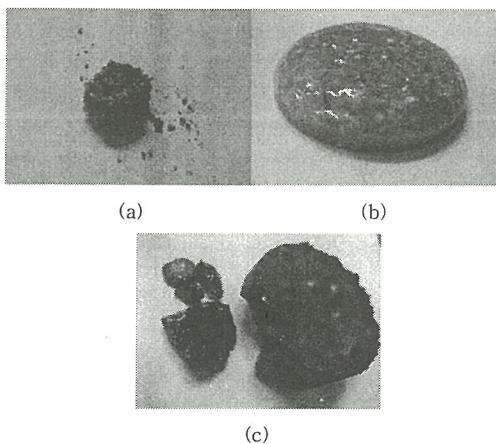


Fig. 3. The melting samples of slag former and slag waste (a) slag former (1200°C), (b) slag former (1300°C), (c) slag waste (1300°C)

그림 4는 생성된 슬래그형성제 및 슬래그폐기물 유리고화체의 SEM사진을 나타낸 것으로, 유리고화체의 특성상 무정형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슬래그폐기물의 경우 형성제와 비교

하여 이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슬래그폐기물내 다량 함유된 불순물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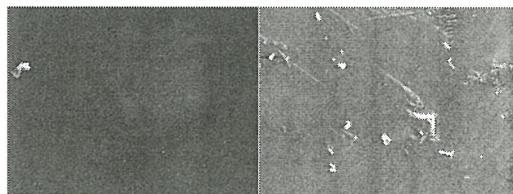


Fig. 4. SEM photograph of slag waste (X1000)

3. 결론

우라늄변환시설 발생 금속폐기물의 용융제염 후 발생한 슬래그폐기물의 안정화 처리를 위하여 슬래그폐기물의 유리고화체의 제조 특성을 조사하였다. 슬래그폐기물은 1300°C에서 1시간 용융시킨 결과 유리고화체로 생성되었다. 향후, 슬래그폐기물 유리고화체의 특성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4. 참고문헌

- [1] 방사성 금속 폐기물이 용융처리 기술 및 방사성 핵종의 분배 특성, 한국폐기물학회, vol. 22, p.213-225, 2005
- [2] 변환시설 발생 해체금속 폐기물의 용융제염 처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p.63-64, 2009
- [3]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용융 및 재활용 기술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고서, 2004
- [4] 유리고화 설비를 위한 방사성 고화체 분석, 한국중공업주식회사 보고서, p.133, 1999
- [5] 방사성폐기물 유리고화 설비 시험평가, 한국중공업주식회사 보고서, 1999
- [6] 슬래그의 조성 및 염기도에 따른 방사성 핵종의 분포 특성, 한국폐기물학회, p.282-285, 2005